몽결초한송夢決楚漢訟 [5]

權 光 旭 역주

이때 양의 태복太僕 벼슬아치가 달려가 한나라에 고하여 고조가 거두어들여 팽월을 주살하고 그 3족을 멸했다)을 불러 물어 가로되 ‘ 너는 무슨 원통함이 있느뇨 ’ 하니 팽월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해 아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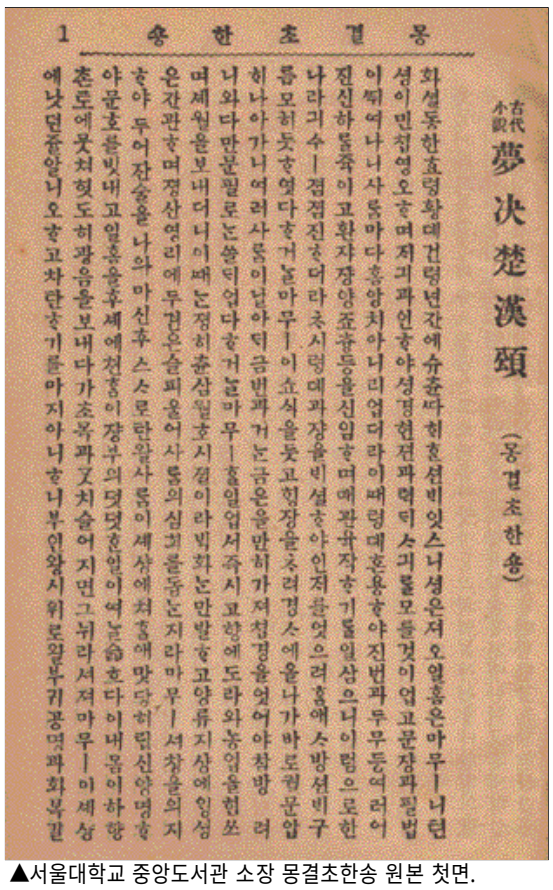
“ 한왕이 항우에게 패하여 감히 싸우지 못할 때에 소장小將이 초楚나라 군사를 파破하고 그 대장 설공薛公을 베며 또 그 양초粮草(군사의 양식과 군마軍馬의 꼴)를 불사르고, 또 한왕을 도와 구리산九里山에서 항우를 파하였으니 그 공이 적지 아니커늘 필경畢竟에 무죄히 죽고 몸이 육장肉醬이 되었으니 어찌 원억 抑(원통하고 억울함)치 아니하리이꼬. ”

말을 듣고 염왕이 일러 ‘ 나중에 결단決斷함이 있으리니 아직 물러가 있으라 ’ 하고 또 영포英布(안휘성安徽省 육안현六安縣 북쪽 또는 서성현舒城縣 동남에 있는 육六 땅 사람인데 이마에 묵형墨刑을 가하는 경죄 罪에 걸렸던 때문에 경포 布라고도 불렀다. 진말秦末에 항우를 좇아 진군秦軍을 파하고 함양咸陽에 들어가 구강왕九江王에 봉해졌는데 일로써 항우의 거스름을 사 한나라에 항복해서는 고조를 좇아 해하垓下에서 항우를 파하고 회남왕淮南王에 봉해졌다. 팽월과 한신이 주살되는 것을 보고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 마침내 모반했다가 군사가 패하여 죽었다)를 불러 묻기를 ‘ 너는 무슨 원통한 일이 있느뇨 ’ 하니 영포가 대답해 말했다.

“ 소장小將이 구강왕九江王이 되었을 때 항우와 틈이 있는지라 수하隨何(변설辯說의 명인이었는데 유방이 한왕漢王일 때에 알자謁者가 되었다. 초한이 자웅을 겨룰 즈음 초나라가 경포 布를 회남淮南의 구강왕九江王을 삼으니 한에서 보병 5만과 기병 5천으로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수하가 능변으로 경포를 설득하여 초를 등지고 한에 항복케 했다. 천하가 평정된 뒤에 고조가 그를 호군중위護軍中尉로 삼았다)의 달래는 말을 듣고 한漢에 돌아와 여러번 큰 공을 세워 한신韓信、팽월彭越과 동공일체지인同功一體之人(같은 공을 세워 한 몸과 같이 된 사람)이라, 한왕漢王이 무죄한 한신과 팽월을 죽이고 팽월의 고기를 젓담아 써 제후諸侯를 나누어 주니, 이 어찌 공신을 대접하는 의義라 하리이꼬. 소장의 총첩寵妾(극히 사랑하는 첩)이 병이 있어 의원醫員의 집에 가 치료할 때에 중대부中大夫 비혁賁赫(회남왕 영포英布의 중대부로 있다가 무슨 일로 영포의 노여움을 사자 주살될 것이 두렵던 차에 영포가 모반할 기미가 보이므로 역말을 타고 장안長安으로 달려가 고변하였다. 고조高祖가 그를 결박해 놓고 사람을 시켜 징험하니 영포가 비혁의 집안을 족멸하고 군사를 일으켜 모반하므로 고조가 비혁으로 장군을 삼아 영포를 멸한 뒤에 기사후期思侯를 삼았다. 죽은 뒤에 강康으로 시호되었다)이 대접하매 돌아와 비혁을 매우 칭찬하기로, 소장이 그릇 무슨 사정私情(사사로이 통한 마음)이 있는가 의심하였더니, 비혁이 겁내어 도망하여 한왕에게 가 소장이 모반謀反한다 하니, 한왕이 그 말을 곧이듣는 고로 소장이 몸을 보전코자 하여 기병起兵하였다가 마침내 몸이 망하였으니 원컨대 대왕은 살피소서. ”

염왕이 ‘ 내 공변되이 처결處決하리니 물러서라 ’ 하고 또 기신紀信(한고조 유방의 충신으로 항우가 형양滎陽을 에워싸 위급할 때 한왕의 수레에 한왕으로 가장하고 탈 것을 자청해 초군을 속이고 한왕을 탈출케 했다. 항우가 노하여 기신을 태워 죽였는데 뒤에 한고조가 순경順慶에 충우묘忠祐廟를 세워 제사하였다. 이로 기신이 황제를 사칭했다는 성어 기신사제紀信詐帝라는 말이 생겼다)을 불러들여 물으니 기신이 개연慨然히 가로되,

“ 소장小將이 형양滎陽(하남성河南省 형양현 서남에 있는 곳으로 관도수官度水와 홍구수鴻溝水가 있다)에서 한왕이 항우에 에워싸인 바 되어 심히 위급함을 보고, 소장이 얼굴이 한왕과 같으므로 한왕의 의복을 입고 황옥黃屋(천자天子의 수레에 받드는 황색의 일산日傘으로 황제의 수레를 지칭)을 타고 좌독左纛(임금의 수레 왼쪽에 세우는 기旗)을 세우고 거짓 항복한다 하고 위태危殆함을 무릅쓰고 나아갔삽더니, 항우, 알아보고 계포季布(약자를 돕고 강자를 꺾는 신의로 유명한 인물인데 항우의 장수가 되어 자주 유방을 핍박했다. 고조가 항우를 멸한 후 3천금으로 잡으려 하니 계포가 스스로 머리를 깎고 목에 칼 쓴 죄인이 되어 노魯나라의 주가朱家의 종으로 팔려갔다. 주가가 등공藤公을 설득해서 고조에게 권하여 사면케 하니 고조가 그를 불러 낭관郞官을 삼았는데 이는 그가 진심으로 연낙然諾함을 중히 여겨서였다. 이로부터 황금 1백근을 얻는 것이 계포의 연낙을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다는 속담이 생겼고 계포일낙季布一諾、계포무이낙季布無二諾이라는 성어가 생겼는데 이는 계포가 가볍게 허락하지 않고 허락하면 반드시 신의를 지킨다는 뜻이었다)로 하여금 소장을 달래어 항복하라 하기로 소장이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꾸짖음에 항우, 소장의 탄 수레를 불질러 죽였사오니, 옛적에 제齊경공頃公(춘추시대 제 환공齊桓公의 손자로 이름은 무야無野이고 경頃은 그 시호이다. 진晋나라 사신으로 극극克이 오자 그가 부인으로 하여금 휘장을 친 뒤에서 살펴보게 하니 극극이 발돋움을 하여 넘겨다 보므로 부인이 웃었다. 극극이 돌아가자 마침 노魯와 위衛、조曹 세 나라 군사가 제나라를 정벌해왔다. 경공은 거듭 패하여 노와 위에서 침탈했던 땅을 모두 돌려주었고 17년 동안 재위했다)이 진晋나라 대장大將 극克(춘추시대 진晋나라 사람으로 결缺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구백駒伯으로도 불렸다. 진 성공晋成公 때 대부大夫가 되어 제齊나라에 불려가게 되었는데 제 경공齊頃公이 휘장을 쳐 놓고 그 부인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니 극극이 섬돌에 발돋움하여 엿보므로 부인이 웃었다. 뒤에 책략가 사회士會를 대신해 정사를 보았는데 산동성山東省 역성현歷城縣의 안鞍에서 제나라 군사를 패주시키고 사후에 헌자獻子의 시호를 받았다)과 싸우다가 패하여 위태함에 봉축보逢丑父(방축보렉丑父로도 잘못 불리는 춘추시대 제齊나라 사람으로 경공頃公의 거우車右[수레에서 주인의 오른쪽에 타 무기를 들고 호위하는 것]이다가 경공이 안鞍에서 진서晋書와 싸워 거듭 패하자 경공과 자리를 바꾸어 축보가 좌거左車로서 막아 면탈케 했다. 축보는 이때 사로잡혔다가 뒤에 사면되었다), 경공의 금포錦袍(비단 예복 도포)를 입고 그 급함을 구하니 이러한 사람을 죽이면 상서롭지 않은 일이라 하고 놓아 보내었거늘, 항우는 소장을 참혹히 해하였으니 어찌 분하지 아니하리이꼬. ”


古代小說 夢決楚漢頌 (몽결초한송)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몽결초한송 원본 첫면.

하였다. 염왕이 이 말을 듣고 추연 然히 왈曰 ‘ 그대는 아직 물러 있으라. 내 장차 처결하리라 ’ 하고 또 주가周苛(한漢의 패沛 사람으로 한왕의 어사대부御史大夫로서 형양滎陽을 지키다가 항우에게 잡혔는데 항우가 만호萬戶를 봉해도 취임하지 않으므로 팽살烹殺했다)와 종공 公(한고조의 장수로 어사대부 주가周苛와 함께 형양滎陽을 지키다가 모책을 세워 위왕표魏王豹를 죽였고 뒤에 항우가 형양을 함락해서 그를 살해했다)을 불러 묻기를 ‘ 경卿의 등等은 무슨 원억 抑한 일이 있느뇨 ’ 하니 양인兩人이 대답하여 가로되,

“ 소장 등이 한왕을 위하여 형양성滎陽城을 굳이 지키다가 마침내 성이 파하여 원통히 항우에게 죽었사오니 대왕은 살피소서. ”

하거늘 염왕이 ‘ 여등汝等(너희)은 물러 있으라 ’ 하고, 또 척희戚姬(한고조의 총희寵姬로서 척부인戚夫人으로 불리며 정도定陶 사람으로 조은왕趙隱王 유여의劉如意를 낳았다. 고조가 죽자 여후呂后에 의해 갇혀 머리를 깎고 목에 칼을 썼으며 붉은 죄수복을 입고 방아를 찧는 벌을 받았다. 이에 척부인이 노래를 지어 ‘ 아들은 왕이고 어미는 포로되어 종일 방아찧다가 해가 저무네. 늘 죽어서 같이 있고자 하되 서로 3천리나 떨어져 있으니 대저 누구로 하여금 네게 알리게 할꺼나 ’ 하였다. 여후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조왕을 주살하고 척부인의 수족을 자른 다음 눈을 뽑고 귀를 지졌으며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여 공을 차는 데서 살게 하고 사람돼지라는 뜻의 인체人 라 불렀다. 사람들이 척부인의 그 노래를 영항가永巷歌라 했는데 영항永巷은 죄지은 궁녀를 유폐하는 궁중옥이다)를 불러 물으니,

야옹野翁공 추향안내

안동권씨 복야공파 판서공계 야옹공野翁公(20世 휘)의 현조 이하 예천 함포산 선산 열선조의 추계향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가족 동반하여 많이 참제하여 주시기를 앙망하여 마지 않습니다. 특히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 참제원을 위하여 당일 서울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를 운행하오니 이를 이용하시면 왕복이 편의하십니다.

아 래

일시 : 2010년 11월 7일, 음력 10월 2일 일요일 07시 30분(서울출발)
집결장소 : 수도권 전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
행사장소 : 경북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함포재사
회비 : 무료(차중 이동 음식 등 제공)
참고사항 : 왕복 차중에서 각자의 자기 소개와 상견례 등을 겸한 보학강좌가 있음
연락처 : 권재종 회장 011-9750-4855권종길 총무 016-234-1309

안동권씨 재경야옹공화수회장 權 在 琮